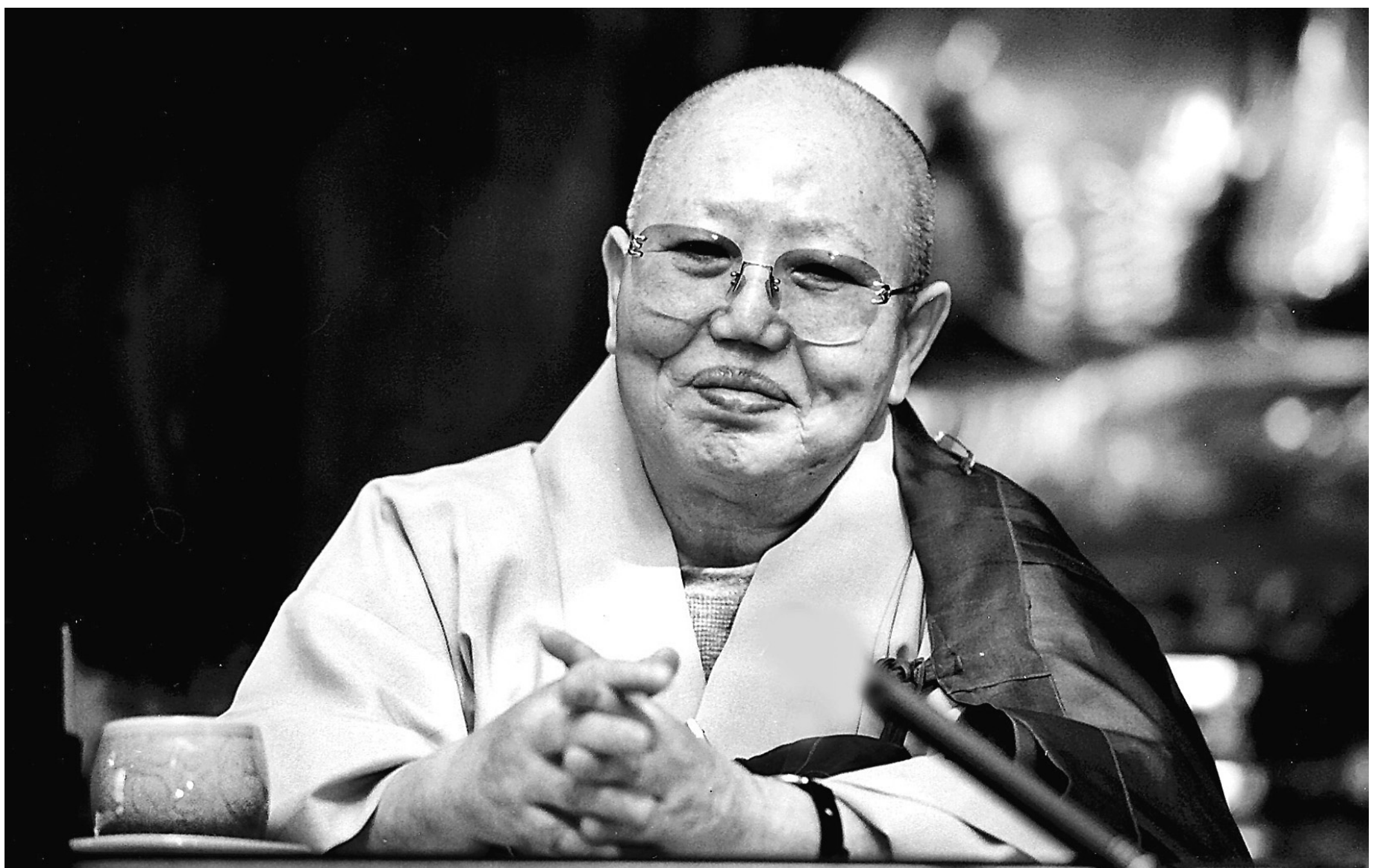


圓 寂

현대불교 890호

불기2556년 5월 30일 수요일



‘나’를 알려면 ‘나’를 내려놓으세요

묘공당 대행선사

1927~2012

열반, 대행으로 보이신 묘공의 이치

“기쁘게 삽시다. 싱겁고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이 기쁠 때 나도 기쁘고 여러분이 슬플 때 나도 슬프니 그것은 우리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걸어갑시다. 영원토록 같이 걸어갑시다.

헤어진다 해도 마음이 하나일 때 그곳에 헤어짐은 없습니다.

설령 죽음이 갈라놓는다 해도 한마음에서는 이별이 없습니다.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이 구김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아픔이라도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묘공당(妙空堂) 대행(大行) 스님은 삶과 죽음을 돌이키지 않고 가르쳤다. 63년 수행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법(法)이었다.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고, 선과 악을 돌로 보지 않는 대행(大行)은 일체가 한마음에서 들고 나는 묘공(妙空)의 도리였다. ‘설령 죽음이 갈라놓는다 해도 한마음에서는 이별이 없다’고 했으니 스님이 이승을 다녀간 86년, 불문(佛門) 안의 63년 생활은 본래 없는 시간에 본래 없는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중생계의 관심은 스님의 실존적 시간에 더 많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거쳐 온 대행 스님의 생애는 ‘길 없는 길을 밟는 발로’ 걸어 온 자취일 뿐이다. 한마음선원이 발표한 스님의 행장과 〈한마음 요전〉 등을 통해 스님의 자취를 더듬어 본다.

유년, 마음속 아빠에게 우주의 근본 묻다

스님은 1927년 음력 1월 2일(양력 2월 3일) 지금의 서울 이태원에서 부친 노백천(盧伯千)과 모친 백간난의 3남 2녀 중 셋째인 장녀로 태어났다. 속성은 교하(交河) 노씨(盧氏)이며 오른쪽 발목 부위에 붉은 반점이 있어 이름을 점순(點順)이라 했다.

스님이 일곱 살 되던 해에 가산이 몰락했다. 조부와 부친이 무관출신이었으며, 부친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군인 출신이었다. 그런 부친의 항일 운동이 발미가 되어 윤택하던 집안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몰수되고 거리로 나앉은 것. 정작 일곱 살의 스님을 힘들게 한 것은 가난보다 부친의 엄한 가르침이었다.

가족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산으로 들로 나물과 이사를 구하려 다녀야 하는 모진 시간 속에서 스님은 풀이나 들짐승 등과 대화 하는 법을 터득했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마음의 눈이 생겼다. 그때 마음속의 ‘아빠’를 세워두고 수시로 ‘아빠’와 마주서 인생과 우주의 근본을 캐물었다.

‘세상 조화가 팔만대장경’임을 감지

스님은 14살 나던 해에 상원사 인근의 외가에 갔다가 한암 큰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선승 한암 큰스님과 인연은 불교라는 거대한 운명과의 만남이었다.

스님이 이산 저산을 떠돌며 수행 하던중 6·25가 발발했다. 포화를 뚫고 찾아 간 곳은 서울의 흑석동 숲이었다. 굶주리면 굶주린 그대로의 자성을 보았고 목마르면 목마른 그대로의 성품을 보며 산을 헤매는 사이 전쟁은 끝났고 잠시 가족들과 만났지만 이내 발길은 산을 향했다.

그로부터 만행의 시간이었다. 전쟁의 참상, 끈질긴 가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 모든 것이 비정상인 시대에 오직 산길을 걷고 굶주림과 맞섰다. 그 길에 ‘아빠’가 있었고 늘 깨침의 종소리를 갈구했다.

“산으로 돌아다닐 때 여기저기 돌도 있고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곰팡이 범세하는 썩은 나무도 있고 잘생긴 나무, 비틀어진 나무도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의 조화를 느꼈다. 거기서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조화가 바로 팔만대장경이란 걸 알았다. 경전을 읽어 보지 않았어도 한두 마디 들어보면 다 포착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조화의 이치를 알았던 결과였다.”

이생(利生), 널리 생명을 이롭게 하는 삶

나이 서른을 넘으면서도 산과 들을 돌아다니는 만행을 계속했다.

만나야 할 내면의 ‘아빠’를 더 사무치게 만나야 했고 내면을 불태우는 구도열은 팔팔 끓기만 했다. 흠뻑으로 자성의 발길을 따라 걸음을 놓으니 화장사(現 지장사), 국립묘지, 한강변, 관악산, 광나루, 현인릉, 청계산을 거쳐 남한산성, 경기도 이천, 강원도 춘천, 영월, 충북 제천 백련사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시간에 이르는 만행이 이어졌다.

치약산으로 들어가 일체를 내려놓고 수행에 목숨을 던졌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상원사 중창불사를 마친 것이 1963년이었다. 그 무렵 사람들은 스님을 ‘이생님’이라 불렀다. 이생이란 널리 생명을 이롭게 하는 삶이다. 누구에게나 “너도 이생(利生), 나도 이생이니 전부 다 이생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대행 스님의 20대와 30대는 만행으로 채워졌다. 그 ‘길 없는 길’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다.

박대하고 핍박하는 사람, 광녀(狂女)와 거지 취급 하며 놀리고 때리는 사람, 찬 밥 한 덩이 주는 사람,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 더러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도 했다.

스님이 처방전을 준 사람들이 기적처럼 병고를 벗어나기도 했다. 그러는 가운데 스님 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병을 고치는 등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스님을 ‘도인’이라고 여기고 받들기까지 했다. 스님은 분명하게 밝혔다. **2면으로 계속**



대행 스님이 가신 5월의 달력. ‘부처님의 향기는 어떤 마음에도 꽃을 피운다’는 스님의 법문이 이달의 법향으로 피어나고 있다.

■ 대행 스님 49재 일정

- 5월 28일 초재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오후 3시
- 6월 4일 2재
- 6월 11일 3재
- 6월 18일 4재
- 6월 25일 5재
- 7월 2일 6재
- 7월 9일 49재

한마음선원 선원장
현대불교신문 회장
묘공당 대행 스님의
원적을 추모합니다

현대불교 임직원 일동
www.hyunbulnews.com

■ 묘공당 대행선사 연보

- 1927년 정묘(丁卯)년 1월 2일(음력) 지금의 서울 이태원에서 출생
- 1950년 상원사에서 방한암(方漢岩) 스님을 친견하고 출가의 뜻을 세움
- 1950~1960년 강원도 경기도 일대 산야에서 10여 년간 산승 고행
- 1960년 탄허스님을 계사(戒師)로 월정사에서 사미니계 수지
- 1961년 탄허스님을 계사로 월정사에서 비구니계, 보살계 수지
- 1963년 치악산 상원사 중창 봉사
- 1972년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현대불교회관」 건립
- 1981년 무량사 우진(宇振)스님을 은사로, 탄허(呑虛)스님을 계사로 소실된 승적 재정리
- 1982년 대한불교조계종에 사찰 등록
한마음선원으로 개칭, 선원장으로 취임
- 1982년 충북 음성군 금왕에 첫 국내지원 개원
제5차 국제불교학술회의에 증명법사로 참석
(중국불교연구원 주최)
- 1984년 본원 합창단을 창단, 선시(禪詩)와 범어로 만든 선법가(禪法歌)를 통한 음성 포교 시작
각 지원에서 어머니, 어린이, 청년합창단 창단
- 1985년 비디오 법문을 통한 영상포교 시작
- 1986년 금왕지원에 최초의 한마음 영탑공원 설립,
현대적인 불교정례문화를 선도
이후 제주, 진주, 중부경남지원에 영탑공원 조성
- 1987년 「천수경(千手經)」과 「반야심경(般若心經)」을 뜻으로 풀이한 한글 경전 보급
미국 캘리포니아에 첫 국외 지원 개원 (모건힐지원)
- 1990년 남성 신도들을 위한 법형제 법회 매월 개최(본원)
- 1992년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설립
- 1994년 주간 불교신문인 「현대불교」 창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주창
불교서적 출판사를 겸한 국내 최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설립
불교계 최초의 거사합창단 설립(본원)
- 1995년 「뜻으로 쓴 한글 금강경」 발표
- 1996년 국내 최대의 불교 포털사이트 부다피아 'buddhopia' 개설,
불교계 최초로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온라인 포교를 시작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출판부 설립
한마음심성과학연구원 설립
첫 유럽지원인 독일 카스트(Kaast) 지원 개원
- 1999년 안양 본원 대법당 준공
불교인터넷방송국 HBTV 한마음불교방송국 개설
- 2000년 8월 UN본부 세계종교지도자 회의 참석
- 2001년 국제 포교 및 외국어 법어집 제작을 위한 한마음국제문화원 설립
스리랑카 종교복지재단 'LJSSS'에서 세계적으로 불교를 널리 알린 외국 스님에게 시상하는 사르보디아 명예상 수상
격월간 수행포교 특채 '한마음저널' 발간
- 2004년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비구니의 수행과 삶' 개최 (본원)
제2회 간양원자들기 한마음합창제 '그 마음 그대로' 개최 (세종문화회관)
-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국제문화원 매년 참가
- 2006년 제2회 소년소녀가장들이 송년의 밤 음악회 개최 (안양문예회관)
- 2009년 한마음불교문화회관 준공
- 2011년 제22회 포교대상 수상(대한불교조계종 중정상)
제3회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한마음음악제' 개최 (세종문화회관)
- 2012년 현재 부산 광주 통영 강릉 등 15곳의 국내 지원과 독일, 캐나다, 태국 등 9곳의 국외 지원을 개원, 국내외 150여 출가 제자들과 나라와 지역, 사상과 종교를 뛰어넘어 자기 마음의 근본을 믿고 말하고 지켜보려는 생활 속 관법 수행을 가르치며 안양 본원에 주석해 오심
- 2012년 5월 22일 세남 86세 법랍 63세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입적(入寂)

■ 법회

- 1971년 이후 30여 년간 연일 단상 법회 개최
- 1986 ~ 2001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적인 대중법회 개최
- 1982 ~ 2001 국내에서 약 80여 회의 초청대법회를 개최
- 1987 ~ 2001 약 70여 회의 국외 초청 법회 개최
- 1990 ~ 2001 매월 가사들을 위한 법형제법회 개최
- 1991 ~ 2000 청년들을 위한 전국연합청년법회 개최
- 1996 ~ 2000 한마음심성과학연구원을 위한 학술법회 개최



스님은 젊은이를 만나면 젊은이의 마음이 되어 진리를 전하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아픈 사람에 맞게 상대와 하나가 되어주었다.

공생·공심 가르침 '세계일화' 꽃 피운다

“이는 나의 힘이 아니고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자성불(自性佛)의 위신력이라, 스스로에게 갖춰진 능력으로 이루어진 공덕이니 스스로의 자성에 감사하다.”

하산, 전법도생의 행화를 펼치다

스님은 1961년에 비구니계를 받았다. 탄허 스님이 계사(戒師)였다. 1965년에 산을 내려 왔다. 사람들의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 법(法)을 전하고자 함이었다. 원주 인근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을 하고 안양으로 거처를 옮겨 '대한불교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법당을 건립한 것이 1972년이고 지금의 한마음선원 자리다.

1970년대, 마을마다 새벽종이 울리고 '새마을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그 때에 전법도생의 행화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1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왔고 불교에 귀의했다.

1982년 조계종에 사찰을 등록하고 '한마음선원'으로 이름을 고쳤다. 스님이 선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해에 충북 음성군 금왕에 첫 국내 지원이 개원됐다. 인연 있는 불자가 운영하던 사찰과 토지를 기증한 것이다. 이로부터 제주, 부산, 광주, 온양, 울산, 대구, 마산, 진주 등 전국 15곳에 지원이 속속 개원됐다. 이들 지원은 안양 본원의 지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불자들이 스스로 발심하여 건립한 것이다. 해외 지원도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모건힐지원이 설립된 이후 독일 브라질 태국 등 10개국에 지원이 설립되었다. 스님은 지원이 생길 때마다 가까이 순회하며 법문을 하고 제자들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살폈다.

전법, 세상에 없던 것이 생기는 기쁨

이제 한마음선원이 하는 일은 뭐든지 시초가 됐다. 세상에 없던 것들이 스님의 회상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1986년 금왕지원에는 영탑공

포교 원력 도량 한마음선원
국내 15곳·해외 10곳 지원 발전
영상·매체 포교에도 신기원

비구니회관 건립에 85억 쾌척
무주상 보시 숭선 “둘로 보지 말라”

원을 조성했는데, 7평 규모의 부지에 1기의 탑을 세우고 그 안에 3대까지의 유골을 봉안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영탑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새로운 장묘문화로 주목 받았다.

합창단을 통한 신행과 포교 그리고 문화사업도 한마음 선원이 선두가 됐다. 스님은 1984년에 본원 합창단을 창단했다. 선시와 범어로 만든 선법가를 통한 음성포교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각 지원에도 합창단이 생겼다. 합창의 열기는 어린이 합창단부터 어머니합창단, 거사합창단의 창단으로 이어졌다.

합창은 단순히 하모니를 맞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화음을 통해 화합과 우애를 배우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겸손을 배운다. 그리고 가사의 뜻을 화두처럼 되새기며 만법의 이치를 궁구하고 남을 위한 보살행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선법이 합창의 공덕이고 수행이다. 물론 듣는 사람은 듣는 즐거움 속에 감동과 깨침의 맛을 보게 된다.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불교계 대표적인 합창단으로 자리매김 하며 2001년부터는 소아암 환자 돕기, 소년소녀 둘기 등 테마 합창제를 주관하여 세상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985년부터 시작된 비디오 영상 포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포교 방법으로 주목 받았다. 스님은 20년 후에 도래한 정보화 사회를 미리 실천에 옮긴 것이다. 영상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포교도 단연 선두였다. 1996년에 불교종합포털 부다피아를 개설해 불교 정보화 시대를 개척해 나갔고 1999년에는 HBTV 한마음불교방송국을 개국했다.

스님이 드러낸 매체 포교 열정은 주간 불교전문 신문 '현대불교'의 창간으로 꽃피었다. 1994년 10월 15일자로 창간된 '현대불교'는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를 표방하며 참신한 내용과 편집으로 기존의 불교계 신문매체들을 단숨에 능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공생, 지구촌으로 퍼지는 법향

안양 본원이 설립된 뒤부터 소식지나 책자 등 간행물을 조금씩 발간해 오던 한마음선원은 출판 분야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지켜 나갔다. 스님은 “나는 말한 예가 없으니 남긴다 할 것도 없으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편이 필요한 고로 책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며 격려했다. <금강경> <천수경> 등 경전들을 뜻으로 쓴 한글 경전도 보급하기 시작했다. 1996년 한마음선원 출판부가 개설되어 본격적으로 스님의 가르침들을 출판 보급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글로벌 시대인 21세기에 들어 한마음국제문화원을 세워(1999년) 범어집 등을 영어 독일 프랑스어 등 각국어로 번역해 출판 보급했다. 세계가 한 가족으로 변화해 가는 시점에 종교인들 동서양의 구별이 있겠느냐는 해안이 불교의 세계화를 주도한 것이다. 스님의 책들은 해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출품되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문화와 역사, 정서가 다른 이국인들에게 이질감 없이 스며드는 스님의 법어는 철저한 생활언어를 근간으로 한다. 종교 이전의 종교를 설하는 스님의 가르침이 다양한 형태의 책을 통해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마음의 원리를 연구하는 '한마음과학원'도 2001년에 문을 열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건립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신 스님은 8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회관 건립비로 내놓으며 “불자들의 심부름을 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한 심부름이 어디 한 두 번이었을까? 스님에게는 ‘법’을 몰러 오든 사람도 많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다. 어느 누구도 박대하지 않고 손이나 주머니를 채워서 돌려보냈고 종종 “내가 가진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구니의 수행에 대한 학술적 조명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스님은 크고 작은 학술 행사를 지원하고 한마음선원에서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비구니의 수행과 삶'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2004년)하기도 했다.

행함이 없는 행이요, 설함이 없는 법문일지라도 그에는 반드시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2011년 조계종 중정상인 제22회 포교대상을 수상한 것도 스님이 펼친 전법도생의 삶을 치하하는 뜨거운 박수였다. UN이 제정한 '위대한 불교여성상'(2001년)과 스리랑카 종교복지재단 LJSSS가 시상하는 '사르보디아' 명예상도 그러한 맥락이다.

이제 육신으로의 대행 스님은 누구도 만날 수 없다. 하지만 책과 사진, 영상물 등을 통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시대를 앞서서 준비하고 정리하고 일깨운 선지식의 자취가 첨단 메커니즘에 부합되어 있음이다.

대행 스님은 '임종계'를 따로 남기지 않았다. 평생 들려준 법문 모두가 그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임연태 <본지 논설위원>



만나고 헤어지는 마음들을 한데 모아 한마음으로 올리오니
세세생생 저희들의 마음속에 항상하시기를 발원하옵니다.

한마음선원 신도회 합장구배